

보도 일시	2022. 5. 15.(일) 09:00	배포 일시	2022. 5. 13.(금) 16:00
담당 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전시콘텐츠팀	책임자	팀장 이경률 (062-601-4230)
		담당자	중령 임종수 (062-601-4232)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 공개

- 5. 16.~6. 30.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이해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한다.

문체부는 1980년 5월 당시 현대사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건물의 탄흔을 찾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해 41년 만에 엠(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5·18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밀 조사를 추가로 요청(2021년 4월)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차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차 정밀 조사를 한 후에 식별된 탄흔을 보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민주화운동 당시의 전남도청 내외부 촬영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 등으로 사라진 탄흔과 탄두 자료를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탄흔 조사과정을 영상으로도 공개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라며,

“확인된 탄두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시설명회 및 탄두 확인 현장 공개 안내>

- 일시: 5월 16일(월) 오후 3시 ~ 4시
- 장소: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및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 대상: 취재 기자, 5·18 관계자

<옛 전남도청 탄두 확인 현장 공개 안내>

- 일시: 5월 18일(수)~27일(금) 오후 1시~5시
- 장소: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 대상: 일반 국민

붙임 1. 특별전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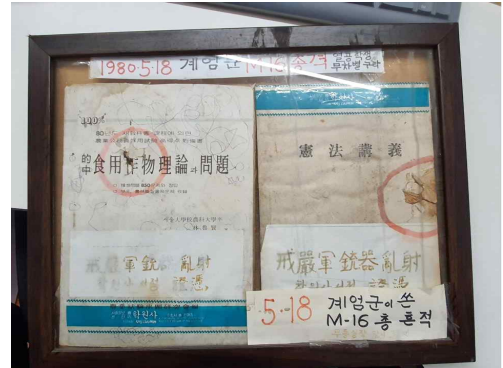
2.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



■ 적출 탄두 및 총탄 서적



< 탄두: 옛 전남도청 본관 서무과 벽면 적출 >



< 총탄 맞은 서적: 기증자료 >

■ 과학적 조사 및 분석 방법

탄흔 성분 분석

Investigation based on the ingredient analysis of bullet marks

5·18당시 탄약 및 탄두 유형

5·18 당시 사용된 탄약 및 탄두

탄약 및 탄두의 비파괴 표면 성분분석

탄약 및 탄두의 미세조직 관찰 및 성분분석

탄흔 표면 분석

Analysis of surface of bullet marks

X선회절분석을 통한 벽체 성분 분석

테라헤르츠 분석

적외선열화상 촬영 및 금속탐자를 활용한 탄흔 식별

탄흔 존재 시 벽체 단면 모식도




옛 전남도청 탄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

Bullet marks at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Complex

2022.
5. 16. MON
|
6. 30. THU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